

강진군, 인구 감소·지방 소멸 막아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인구·청년 정책 시행계획 수립 사업장 임대료 지원·빅데이터 온라인마케터 인력양성 등

강진군이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의 새 틀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강진군은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인구·청년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2009년부터 시행했던 '강진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2020년에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신규 제정했다. 인구정책 종합 시행계획 수립 근거와 각종 인구시책사업 지원 대상 및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2022년 인구·청년 정책 시행계획에 반영했다.

특히 올해는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창업청년 사업장 임대료 지원사업은 강진군에서 창업해 임대료를 납부 중인 청년에게 최대 1년간 월 3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또 2021년 1월 1일 이후 산단 기업에 입사한 후 1년 이상 근무 중인 관내 거주 청년에게 1인당 100만원의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강진품에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이밖에도 청년 신규사업으로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도제 취업 패키지 지원사업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지원

사업 ▲청년 창업 후속 프로그램 지원사업 ▲빅데이터 온라인마케터 인력양성 지원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이 있다.

한편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 2021년 11월 전문 TF팀을 구성해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시책들과 연계하고 사회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정착 인구 및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임준형 강진군 일자리창출 과장은 "청년이 살아야 지역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고 그것이 인구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바탕으로 다양한 역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흥군, 전국 최고 명품 고급육 브랜드 '장흥한우' 출시

장흥축협·토요시장 등서 판매

장흥군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축산물 시장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를 출시했다.

정남진 장흥한우는 장흥군과 장흥축협, 한우사육농가와 토요시장 식육판매업소가 힘을 모아 야심차게 준비한 한우고기 고급육 브랜드다.

군은 장흥한우가 고급화, 브랜드화로 전국 최고의 명품한우로 자리매김하고,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축산물 시장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이번 브랜드를 런칭했다.

장흥군은 5만8000여두의 한우를 키우고 있어 전남 최대의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육질 1+등급 이상 고급육 출현율 또한 54.2%로 매우 높아 명품한우의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정남진 장흥한우는 한우 거세우 1+등급 이상의 Major(최우수)등급과 한우 거세우와 암소 1등급 이상의 Prime(우수)등급으로 구분하여 장흥축협 판매점과 토요시장 브랜드전문 식육판매점을 통해 판매하게 된다.

브랜드 한우는 고품질 단백질과 유용미생물이 첨가된 전용사료를 18개월 이상 급여하고 전용 사양 프로그램 준수 등 품질 인증 기준에 맞는 혈통한우



한 주민이 한우 판매점에서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한우를 살펴보고 있다. <장흥군 제공>

만을 선별하여 유통 판매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장흥군 한우산업이 이번 고급육 브랜드 출시로 재평가를 받을 기대한다"며 "소비자들이 장흥한우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나주시, 시민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 31일까지 온라인 신청

나주시가 시민의 문화생활 활성화와 건전한 여가 향유를 위한 '시민오케스트라 공연프로젝트' 단원을 모집한다. 나주시는 '문화로 행복한 나주'를 슬로건으로 이달 31일까지 시민 단원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민오케스트라 공연프로젝트는 2019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생활문화콘텐츠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에 힘입어 3년간 추진해왔다. 오케스트라는 악기 연주와 음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구성·운영

된다. 지난해 2차례에 걸친 온라인 비대면 정기공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감동과 치유, 소통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문화행복지수를 높였다.

악기 분야는 개인 악기를 보유하고 오케스트라 활동에 관심이 있는 만18세 이상 시민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금관악기 등 오케스트라 합주가 가능한 악기다.

신청은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2022나

주시민오케스트라 공연프로젝트 시민단원 모집' 별도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개별 통보되며 활동 단원들에게는 4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악기별 전문 강사가 지도하는 정기연습(매주 토요일)과 정기공연(2회) 기회가 주어진다.

나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선물을 전해줄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오케스트라 공연프로젝트 단원 모집 관련 문의는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 참조 또는 문화예술과(061-335-5008)로 하면 된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담양 전통공예명인, 청소년 방과후교실에 가야금 기증 "청소년들, 우리 전통가락의 멋 배우길..."

전통공예 명인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직접 만든 가야금을 기증해 감동을 주고 있다.

담양군에 따르면 가야금, 거문고 등 전통 현악기를 제작하는 허무 공예명인이 담양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청소년을 위해 가야금 5대를 기부했다.

담양에서 범음국악사를 운영하는 허무 명인은 방과후아카데미에서 가야금 수업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청소년들의 문예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손수 제작한 가야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그는 2019년에도 담양군에 가야금 20대를 기증한 바 있다.

이번에 기증한 가야금은 25년 이상 온통 나무 원목을 이용해 건조, 대패질, 인두작업, 도장과 조율 과정까지 한 땀 한 땀 명인의 손길이 닿았다.

허무 명인은 "가야금을 배우는 청소년들이 전통음악을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 우리 전통의 가락과 멋을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 4~6학년생을 대상으로 학습지원(영어, 수학), 전문체험(미술·악기연



수제가야금 명인 허무씨.

주), 역량개발(과학탐구·진로체험) 등의 교육을 진행 중이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화순군, '화순사랑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대상... 4월 1일~6월 30일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화순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을 나섰다.

지원 대상은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2021년도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지원 기간은 2020년 11월2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화순사랑카드 결제액이 200만원 이상인 가맹점(소상공인)이다.

지원기간에 화순사랑카드를 사용해 발생한 카드 수수료로 매출액의 0.5%규모다.

해당 소상공인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류 검토 과정을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다음 달에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화순군이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화순군 지역경제팀 관계자는 "가맹점당 최대 20만원 가량의 수수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함평군 '농촌마을 만들기' 환경개선 사업 추진

나산·해보·대동 3개 마을 지원 ... 경관개선·주민 역량강화 교육

함평군이 농촌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마을 만들기는 공동체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및 경관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마을회관 정비 등 기초생활 기반 확충, 경관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함평군은 지난 2018년부터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나산 용수마을, 엄다 영화정 등 11개 마을이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도 나산 원구산, 해보 구계, 대동 외덕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당 5억원씩 총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마을 특색을 반영한 환경 정비,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낙후된 농어촌 마을에 활력이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